

【 사회 】

5·18모지 관리소장 못 뽑나...안 뽑나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 공석 상태가 만 1년을 맞았다. 관리소장 공모 절차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마땅한 적임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5월 관련단체와의 이견 때문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보훈처가 5·18모지 관리소장을 못 뽑는 것인지, 아니면 안 뽑고 있는 것인지를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0월 전남 관리소장인 박경순씨가 지병으로 타계한 이후 지난 1월의 1차 공모모집에 이어 5월 23일, 7월 11일 등 모두 세차례

1년 공백 속 울들어 4차례 공모에도 인선 안돼

보훈처 "적임자 없다" 불구 5월단체와 이견설

에게 걸쳐 공모절차를 밟았다. 보훈처는 3차 공모까지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한채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차 공모를 내고 응시자 접수를 받았다. 보훈처는 당시 이날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공고했으나,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후임 인선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5·18 민

중항쟁에 대한 전문성이나 변화관리 능력, 능률한 외국어 실력 등을 갖춘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며 "특히 4차 공모모집에 참여한 5·18 관리자가 몇몇 있었는데, 서류 검토 및 면접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후임 인선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5·18 민

과였어 1년 넘게 계속되자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선 보훈처와 5월 단체가 서로 다른 인사를 내세우다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훈처는 관료 출신 인사를 원하는 반면, 5월 관련단체는 5·18 관련자 출신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 5월 관련단체의 공동 추천을 통해 임명된 전남 박경순 소장도 달리 이번엔 추천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설도 무성하다. 관리소장 임명은 응모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발위

원회에서 면접을 거쳐서 것이 공식 절차지만 5월 관련단체들의 입장이 무시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5월 단체 관계자는 "5월 관련단체가 추천자 문제로 이견 차이를 보인다 늦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3차 공모 때 추천자를 뽑아 보훈처에 올렸으나 알수 없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번 일로 보훈처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모지 관리소장 자리는 지난해 10월 29일 박경순 전 소장이 지병으로 타계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남아있으며, 광주지방보훈청 김용호 총무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윈서리 내리는 상강(霜降) 10월 23일 (음 9월 25일)

◇ 전국 날씨

| 지역 | 날씨 | 기온(최고/최저) |
|----|-------|-----------|
| 서울 | 흐린 날씨 | 17~23℃ |
| 부산 | 흐린 날씨 | 18~23℃ |
| 광주 | 흐린 날씨 | 18~23℃ |
| 전남 | 흐린 날씨 | 18~23℃ |
| 제주 | 흐린 날씨 | 18~23℃ |

▲ 해돋이 06:45 ▲ 해질 17:48 ▲ 달돋이 00:46 ▲ 달짐 14:40

◇ 주간 날씨

| 날짜 | 24(금) | 25(토) | 26(일) | 27(월) | 28(화) | 29(수)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11/18 | 7/19 | 7/20 | 7/21 | 8/22 | 9/22 |

“5·18 왜곡 목사 공식 사죄하라”

5월 단체 서한 또 보내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들은 예매 도중 5·18 민중항쟁을 왜곡한 서울교회 이종운 담임목사에 대해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문을 또 다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항의 서한문은 지난 11일 이 목사에게 건넨 항의 서한문에 대한 이 목사의 답변서를 보고 공식사죄를 재촉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이들은 항의 서한문을 통해 “5·18 민중항쟁을 왜곡한 이 목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목회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며 민주화를 열원하는 5월 영령과 국민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공식사죄를 재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 목사의 주장대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 목사는 오는 26일 주일 예배에서 5·18 역사의 진실을 신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은 물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목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17일 5·18단체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설교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그 파생적 권리인 설교의 자유 취지에 맞다”며 “목회자로서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날 28일 예배 도중 “광주 민중항쟁은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학살과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해 5월 관련단체와 광주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YWCA 가을 장날 '복작'

22일 광주시 북구 유동 광주YWCA 1층 회관에서 열린 '가을 장날'을 찾은 시민들이 김치, 잡채와 여성의류, 악세서리 등이 어울린 장터를 둘러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YWCA가 주관한 '가을 장날'은 24일까지 열리며 수익금은 시민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된다.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영광원전 화학물질 관리 국제 기준 못미쳐

IAEA 안전 점검

영광 원전 5·6호기의 화학물질 취급·관리 부분이 국제 기준치에 못 미치는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영광 원전 5·6호기의 안전점검단(OSART)이 실시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 정비 및 발전 보조용으로 쓰이는 화학물질 취급·관리 항목에서 '관고' 대상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산업안전사고 데이터 수

집 ▲취급을 조심해야 하는 자재 관리 ▲가타 화학물질 유효기간 관리 등 9가지 항목에서는 '제한' 평가를 받았다.

'관고'는 IAEA의 국제 평가 기준에 못 미쳐 문제점이 지적된다는 의미이고, '제한'은 평가 기준에는 들어맞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원전 측은 설명했다.

한편 ▲주 재처리선 운전원의 전문성 ▲시의적절한 발전소 정비 등 10가지 사례는 안전점검단으로부터 우수성을 평가받았다고 원전 측은 덧붙였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중국산 계란 분말에 멜라민

제품 5건서 검출

계란분말 등 중국산 알(卵) 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22일 중국산 알 가공품 9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대련 하노버 식품'과 '대련 그린스노우 알 제품 개발' 두 개 업체 제품 5건에서 0.1~4.0 ppm의 멜라민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검역 당국은 일본산 중국산 전란분(계란 가루)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지난 17일부터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알 가공품에 대해 전면 수거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품목은 구제적으로 오리란황분(오리란 노른자 가루), 전란분, 난백분(흰자 가루), 난발' 두 개 업체 제품 5건에서 0.1~4.0 ppm의 멜라민이 확인됐고 22일 밝혔다.

합계 수입된 물량은 총 47.1t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47.1t 가운데 현재 수입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23.2t에 대해 즉시 폐기를 명령하고, '대련 하노버 식품'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형 수출 선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머지 23.9t의 경우 가공식품 제조 원료로 수입 가공업체가 이미 직접 사용(19.2t)했거나 11개 업체에 공급(4.7t), 시중에 유통된 상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원료로 제조된 가공식품 생산·유통 현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고 수거·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연필뉴스

함께 수입된 물량은 총 47.1t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47.1t 가운데 현재 수입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23.2t에 대해 즉시 폐기를 명령하고, '대련 하노버 식품'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형 수출 선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머지 23.9t의 경우 가공식품 제조 원료로 수입 가공업체가 이미 직접 사용(19.2t)했거나 11개 업체에 공급(4.7t), 시중에 유통된 상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원료로 제조된 가공식품 생산·유통 현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고 수거·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연필뉴스

가을 단비...해갈엔 부족

| 지역 | 강수량 |
|----|--------|
| 원도 | 85mm |
| 고흥 | 47.5mm |
| 보성 | 37mm |
| 강진 | 35mm |
| 장흥 | 33mm |
| 순천 | 33.5mm |
| 해남 | 32mm |
| 여수 | 32mm |
| 목포 | 18mm |
| 광주 | 12mm |

오랜 가뭄으로 메달가던 광주·전남지역에 반가운 가을비가 내렸다. 하지만 가뭄을 해갈하기에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비는 원도가 85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인 가운데 고흥 47.5mm, 보성 37mm, 순천 33.5mm, 해남 32mm, 여수 32mm, 목포 18mm의 비가 내렸다. 광주에는 12mm의 비교적 적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23일 밤까지 5mm가량 더 내린 뒤 점차 개개으며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일 내린 전남 지역 평균 강수량은 25mm에 불과해 가뭄을 해갈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많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다음달 5일 취임식

광주교대 박남기(48·교육학과) 총장 당선자가 다음달 5일 취임식을 갖는다.

광주교대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총장 임명장을 받고 4년 동안 제5대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화산 출신인 박 총장은 서울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행정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 계비교교육학회 부회장, 전국교대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정삼필기자 camus@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대표이사 010-7570-7525**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 명도 정확한 권리분석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 ▶ 권리사실/결말 | | | | | ▶ 아파트/빌라/오피스텔 | | | | | ▶ 주택/재개발 | | | | | |
|-----------|-----------|------|------|------|---------------|----|----|-------|------|----------|-----|---------|------|-------|------|
| 소재지 | 대지/건물 | 감평가 | 최자가 | 비고 | 소재지 | 양적 | 면적 | 승용/중 | 감평가 | 최자가 | 소재지 | 대지/건물 | 감평가 | 최자가 | 비고 |
| 여수읍신 | 대785/2244 | 8%2년 | 4%8년 | 3층석가 | 영동 | 금호 | 47 | 20/18 | 2%4년 | 1%8000만 | 영동 | 대88/246 | 1%4년 | 7800만 | 2층주택 |

| ▶ 숙박시설/근린상가 | | | | | ▶ 근린주택 | | | | | ▶ 공장/모지 | | | | |
|-------------|-----------|------|------|------|--------|----------|------|-----|---------|---------|---------|------|------|----|
| 소재지 | 대지/건물 | 감평가 | 최자가 | 비고 | 소재지 | 대지/건물 | 감평가 | 최자가 | 비고 | 소재지 | 대지/건물 | 감평가 | 최자가 | 비고 |
| 영동 | 대110/2250 | 8%2년 | 3%6년 | 5층호텔 | 산포동 | 대83/2111 | 2%8년 | 2%2 | 3층상가/빌라 | 목동 | 대94/591 | 1%8년 | 2%6년 | 경 |

2009년에도 동부고시 합격신화는 계속됩니다.

공무원시험 합격준비!!!

개강 (주간반·야간반) **11월 3일(월)**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경찰직/ 소방직/ 사회복지직/ 검찰직/ 교정직/ 출판직/ 기술직

소방직 5년간 8,359명 채용! 소방직 단독반 개강: 11월 3일

2008년 동부고시학원 국가직, 광주/전남/서울/경기 지방직 합격자 면접특강 장면

공무원 합격률 1위!!! 학원만족도 1위!!! 강의만족도 1위!!!

할 수 있다는 믿음! 동부고시학원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www.dongbugosi.co.kr

1 동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바로뒤 233-0509

선착순접수, 조기마감주의